

000

0000 000, 00, 00000 00 00 000 0000 0000 0000. 00 000 000 000 0
00 00 000 0000 00 0000000 000 000, 000 00 0 000 000 00 000000 00
00 00 00 0000 000 00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000 '000' '0
00' 000 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 00 0
000 000000. 00 000 000 000 000 00 00, 00 00 00 00000 00 00 000,
000 00 000 00000 000, '00 00' 0 000 000 000 000 000 0000 000
000.



00

00 00, 4500 00 0000 00, 30 70, 0000, 2017



□□

□□ □□, 45□□ □□ □□□□ □□, 3□ 7□, □□□□, 2017



□□

□□ □□, 45□□ □□ □□□□ □□, 3□ 7□, □□□□, 2017



□□□

□□□□, 152□□ □□ □□□□ □□, 2□ 10□, □□□□, 2014



□□□

□□□□, 152□□ □□ □□□□ □□, 2□ 10□, □□□□, 2014



flickering

□□□□, 241□□ □□ □□□□ □□, 3□, □□□□, 2016



flickering

□□□□, 241□□ □□ □□□□ □□, 3□, □□□□, 2016



flickering

□□□□, 241□□ □□ □□□□ □□, 3□, □□□□, 2016

□□□□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 〇 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2016〇 <〇〇〇〇 〇〇> (OCI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13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2015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 60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2017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_〇〇〇_〇〇](#)

〇〇〇〇〇〇. ■

【〇〇1】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58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인천 근대건축물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일시 2017. 7. 27(목) 15:00
장소 인천문화재단 H동 2층 다목적실

인천 근대건축물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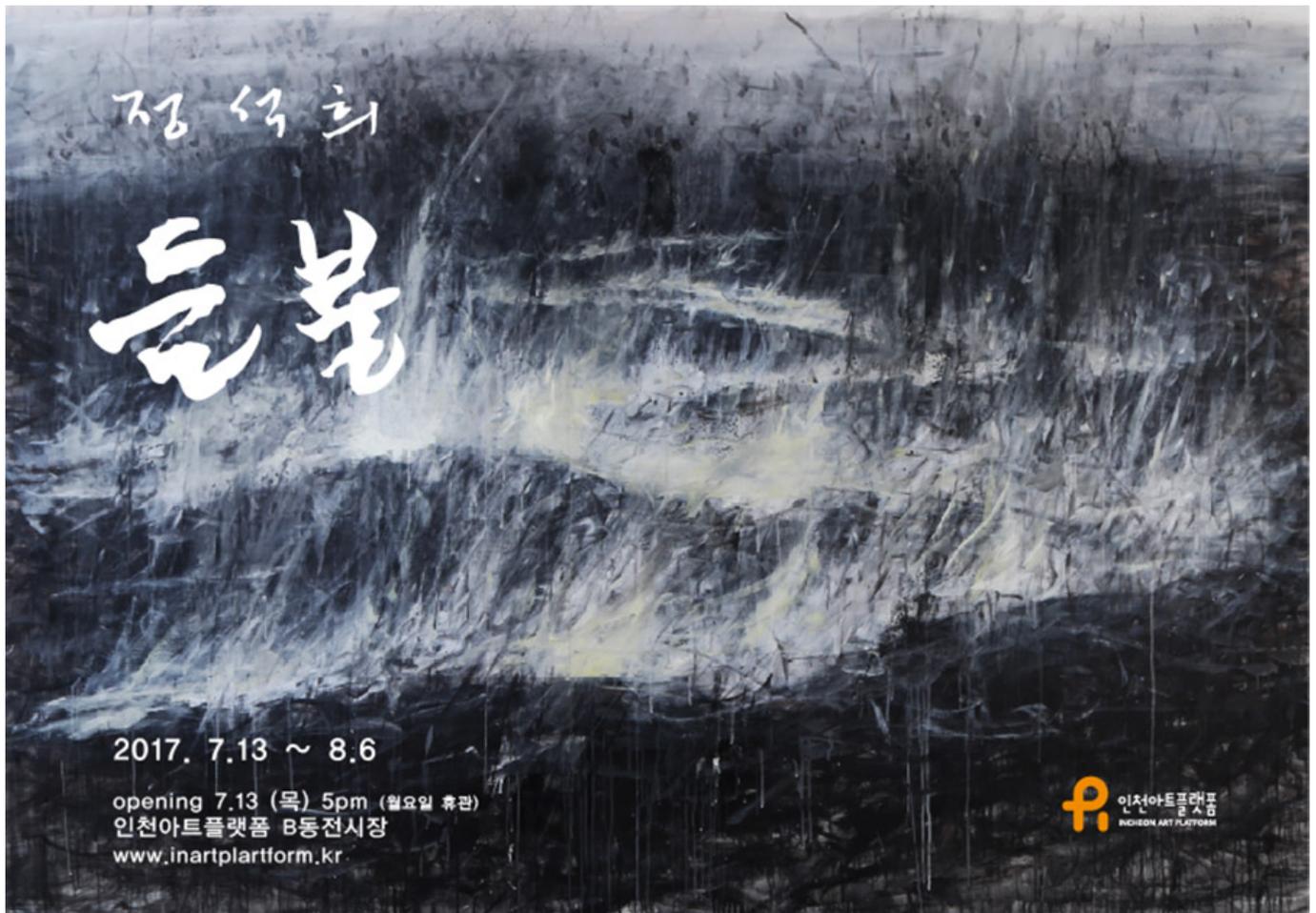
인천 근대건축물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인천 근대건축물 개발과 보존의 경계에서

00000

[002] 00000 000 000000 000 00
000 00000! <0000 000 20> 000 00

[003] 0000000 0000 000 000
<00>0 00



2017년 8월 06일 0000 0000 1400 0000 <00>0 00 2017년 7월 130000 8월 60000 00000000 B동 000000 00000.

0000 000, 00, 000000 00 00 000 00000 00000 00000. 00 000 000 000 0 00 00 000 00000 00 0000000 000 0000, 0000 00 0 000 000 00 000000 00 00 00 00 00000 0000 00000 0000 0000.

0000 00 00000 00 0000 '00'0 00 '0'0 0000 00000 00 00, 0 00 0000 00 0 00 000 00 00 00000, '0'0 0000 0000000 0000 00000 00, 0000 0000 00000 00 0000 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00 0000 0000 00 00 0000 000000000 0000 00 00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0 00, 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2○○○○○○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2017. 7. 13.(○) ~ 8. 6.(○)
2. ○○○○ : ○○○○○○○○ B○ ○○○○
3. ○○○○ : 12~18○, ○○○○ ○○
4. ○○○○ : 2017. 7. 13.(○), 17○

○○○○○○○○○

[○○4] <○○○○ ○○ ○○ : ○○○○ ○○○○ ○○○○○> ○○ ○○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서온 인천,
1883년 개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인천 이야기를
들으시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 8월 3일
생활문화센터 H동 2층 다목적실

우리가 몰랐던 인천 이야기



주최 | 인천평생교육진흥원
Incheo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주관 | IFC 인천문화재단
Incheon Cultural Foundation

한국근대문학관
The Museu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 본 강좌 이후에도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 <우리가 알아야 할 시인교양>강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서온 인천, 1883년 개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짜 인천 이야기를 들으시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6일 ~ 8월 3일 생활문화센터 H동 2층 다목적실

우리가 몰랐던 인천 이야기

주최 | 인천평생교육진흥원 Incheon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주관 | IFC 인천문화재단 Incheon Cultural Foundation

한국근대문학관 The Museum of Korean Modern Literature

한국근대문학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15번길 76

※ 본 강좌 이후에도 <너무나 재미있는 한국문학>, <우리가 알아야 할 시인교양>강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6일 ~ 8월 3일 생활문화센터 H동 2층 다목적실

□□□ □□□□. □□□ □□□ □□□ □□ □□□□□□ □□□ □□□ □□ □□□ □□□ □ □□□□□.

우리가 몰랐던 인천이야기

날 짜	강 의 내 용	강 사 명
7. 6(목)	재미있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13(목)	우리가 몰랐던 인천의 인물들	김윤식(시인)
7.20(목)	인천의 과거와 현재 - 인천의 도시발전	김용하 (도시계획박사)
7.27(목)	인천의 살림살이는 어떨까? - 인천의 경제	김하운 (서험에하는 인천사람들 대표)
8. 3(목)	인천, 어디까지 가봤니? - 인천의 골목길	유동현 (‘굿모닝 인천’ 편집장)

* 강의 제목 및 강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인천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
- 인 원 40명
- 일 정 2017년 7월 6일 ~ 8월 3일 매주 목요일, 18:30~21:30
- 수 강 료 무료
- 장 소 생활문화센터 H동 2층 다목적실
- 문 의 032-455-7165
- 접수기간 2017년 6월 26일 ~ 7월 5일
- 접수방법 1. 이메일 신청 gangjwa01@naver.com (메일 제목에 '인천강좌신청, 이름, 전화번호' 기재)
2. 전화신청 032-455-7165

주최 |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관 | 인천문화재단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 및 진행 | 이현식, 함태영, 임은정, 공재우

- □ □ : 2017□ 7□ 6□ ~ 8□ 3□ □□ □□□ 18:30 ~ 21:30 □ 5□
- □ □ : □□□□□□ H□ 2□ □□□□
- □□□ : □□
- □ □ : 2017□ 6□ 26□ ~ 7□ 5□, □□□ 40□
- □□ □ □□ : gangjwa01@naver.com, (032)455-7165.

□□□□□□□

0000 000 00

00 00 00

'000'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0000' 000 00 000 '0~0'000 00 00 00000. 000 0000 0000 000 00 00 0000. 00 00, 0000 0 0 00 00 '00 00 0'0 00000 00 0 000 00 0 00. 0, 000 000, 0000 00 0 000 000 0 0000. 0000 00 000000 000 00 000. 000 00 0 0000 000 00000. 000 000 00 00 0000 0 00. 00 00, 00000 00000 00. 0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000 00000.

0000 000 00 0000 00 0000 0 000 00 000 00 0000, 0000 0000 0 0 0 0 0000 000 00 000 0000. ZK/U 000 0000 000 0000 0000. 00 00 000 00 00 000 000 00 000 00000 00 00000 0000 0000. 000 000 0 000 0 0 0 000 00 0000? 0000 000 0000 0000 0000 00 00 000 00 000 0000 0 00 00. 000 0000 00 00 00 00000 000, 000 0000 000 0000 00, 00 00 00 00000. 0000 000. 00 0000?

"00? 000! 00 00 00? 00 0000 0000... 00, 0000 00 000? 00 00 00 00 0 00..."

0! 000 00 00 0 000 00 00000 0000. 00 000 0 0000 0000 00000 00 00 000 0000. 0000 000000 000 00 00?

'00 0000000 00, 00 00 000. 0, 000 000 000 000 0, 00 00...00 000? 000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 00 '0 000'00 000000 00 000 0 0000 000000 000 0 0 00 00 00 000000 00 000000 00 000 00000. 000 0000 000. '0 000', 00 0 00 0000, 000000 000 00 00 00 0 000 000... 000, 000 000 000. 0 0 000000 0 00 00 00 000 00 000 000. 00, 0 000!



이들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온 이민자들이며,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주로 아시아권에서 온 이민자들이며,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אנחנו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שיש להעביר את המידע הזה בצורה הטובה ביותר. לכן אנחנו מארגנים את המפגשים האלה.





2011년 철거 직전의 세관 창고



2012년 세관 창고 복원 공사

9. **원데이 홈브루잉 프로그램의 목적,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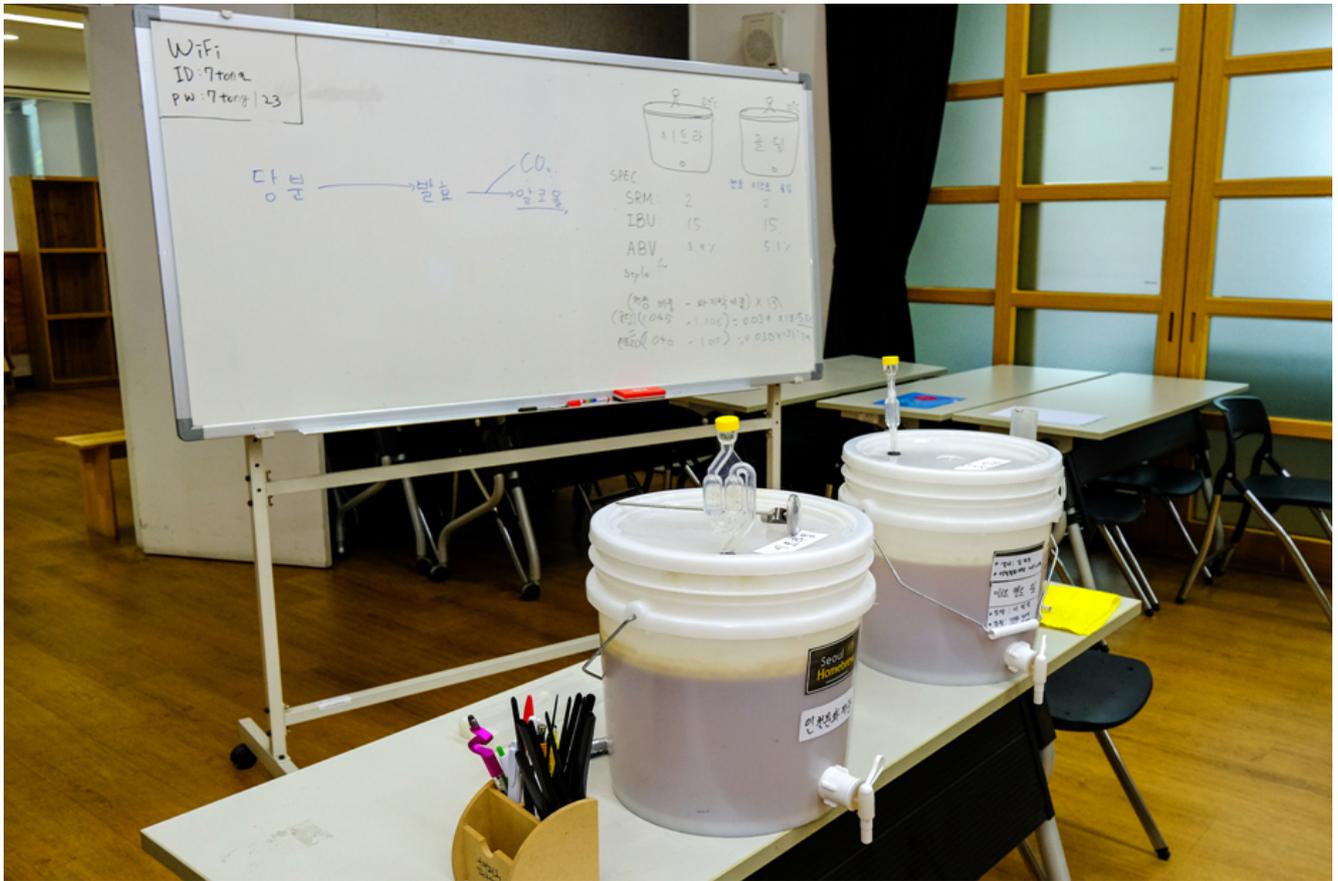
원데이 홈브루잉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집에서 쉽게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맥주 재료의 소개, 맥주 제조 방법의 실습, 그리고 맥주 맛보기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맥주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 특산물인 홉과 맥아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데이 홈브루잉 프로그램은, 1인당 3.0 원의 예산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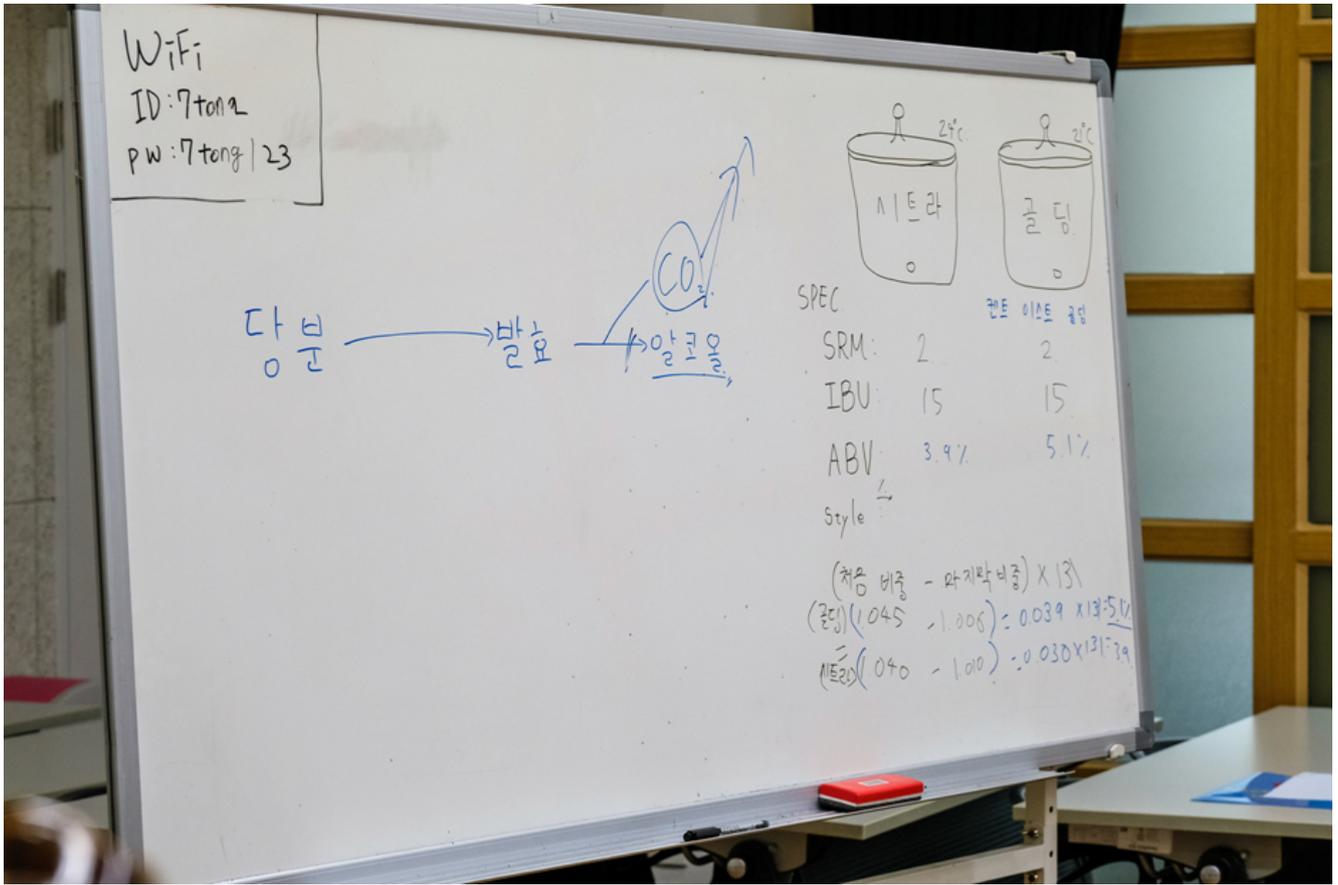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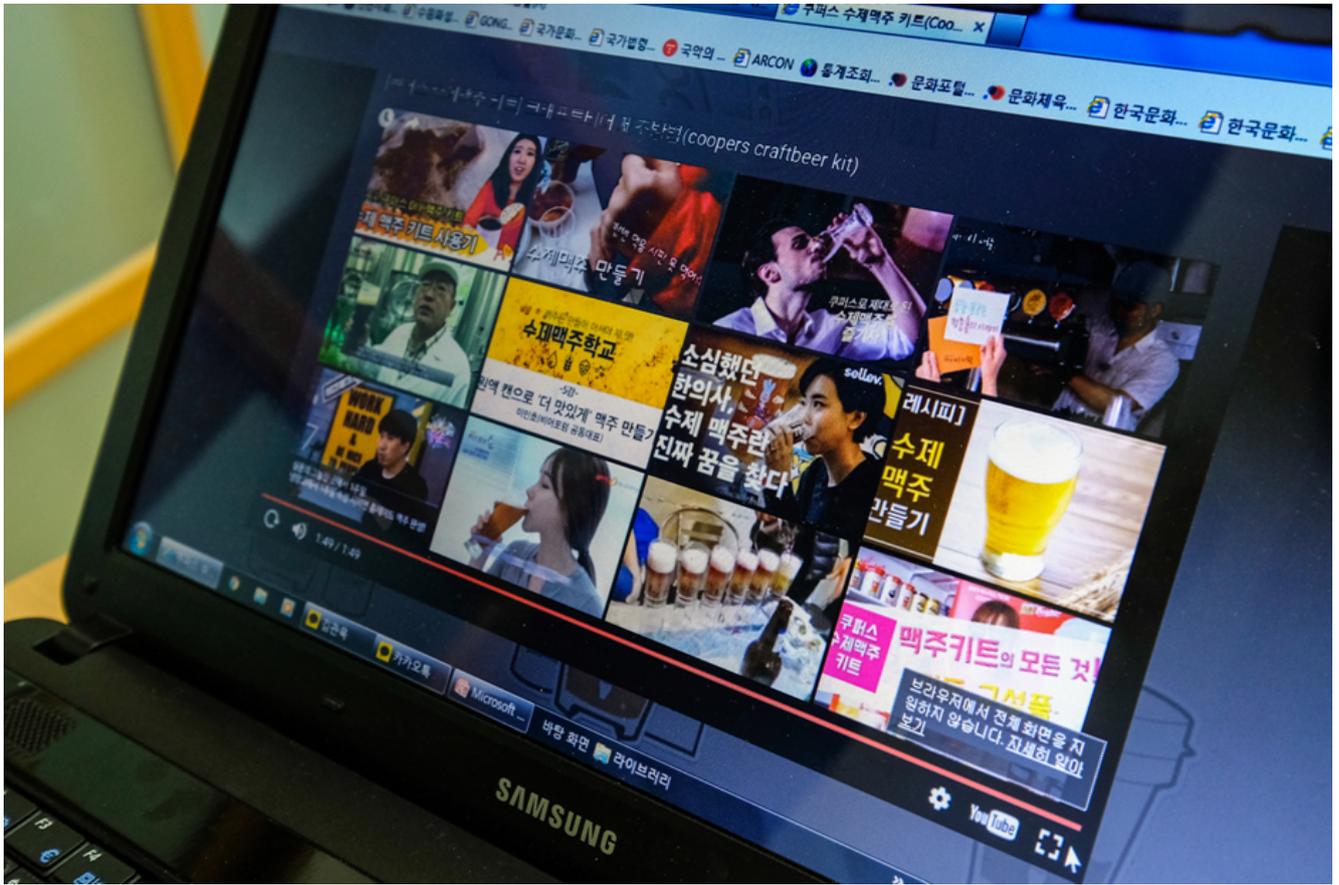




























* 모든 행사 관련 문의는 010-9700-1234로 연락주세요.

2017년 6월 24일 (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길 10호
 3.0 버전 3.0 버전 3.0

□□□ □□, □□□□ □

unlimited landscape



허락된 풍경

이호진 사진전

2017.06.01(목) ~ 06.07(수)
사진공간 배다리 / 스페이스 빔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선정되어 개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간을 통해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의 '도시의 미래'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3차 전시회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 도시의 미래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이 도시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고,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00 0000 00

000 00 00 000 0 000 000000. 000 0000 000 0000000 000 0000 0 00 0 000 000 '000' 0000 00 0000. 000 0000 00 000 0 000 0 00, 00 000 0 0000 00 0 000000 00 00000 00000 0000 00 0000 000 00 00000 000 000 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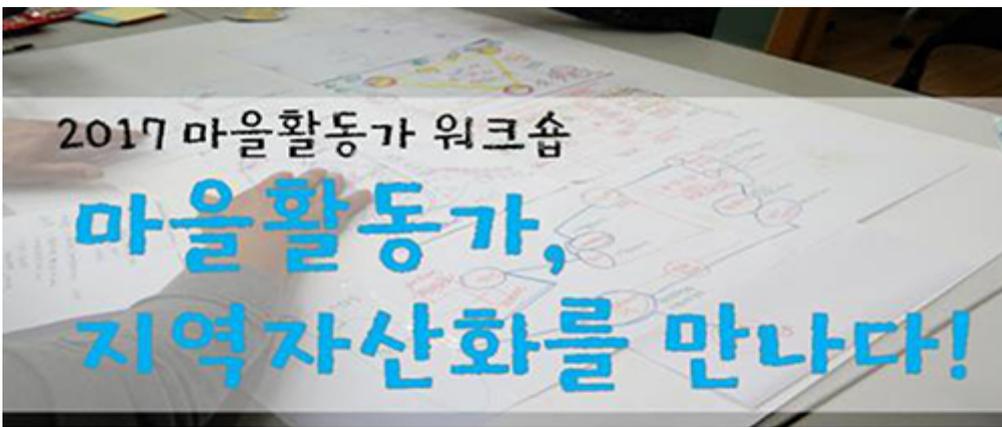
0000 000000 00000 000 0 0 00 00 000 00 00 000 0 00000 00000 000 00 00000 000000. 000 00000 0, 00 00 000 00 0 000 00 000 00 000 00 00 00000. 000 00 00 0 000 000 00 00000 '2200 00'00 00 00 000 000000. 2100 000 00 000 000 00000 00 00 0 000 000 0 00000 00 0 00 000 00 0 00 00000.

'00000 00 00, 000 00000 000 00000.' 00000 0 00000 00000 00000 0 00000 00 00 00000 000 000000. '00000 00 00000 000 00 000 00 000 00000, 00 0 000 000 00 000000.' 00000 000 0000000. 000 00000 00 00 00 00 000, 00 0 000 000 00 00 000 0000000. 0 00000 0000000.



□□ □□□, □□□□□□

□□□□□ □□□ ‘□□□□□, □□□□□□ □□□’



마을활동가 워크숍은 마을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場)입니다. 이번 <마을활동가, 지역자산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최근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강화에서 '지역자산화'에 대해 학습하고 교류합니다. 활동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_ 2017년 6월 21일(수) - 22일(목), 1박 2일

장소_ KT&G 강화수련관, 스트롱파이어/아삭아삭 순무민박

대상_ 마을활동가 35명 (2017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마을공동체 포함)

일정_

6월 21일(수)

11:30 사례지답사 <청년들이 강화에서 사는 법> _ 신회승(정몽상회)

15:30 이론강의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자산화!> _ 전은호(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19:00 열린대화 <지역자산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월 22일(목)

10:00 대화모임, 피드백

* 프로그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_ 방문접수, 전화,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선착순 접수)

문의_ 032.777.8200(교육담당) www.incheonmaeul.org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1회 2시간씩 총 2017년 하반기 마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30분씩 발표한다.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마을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학교’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학교’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주제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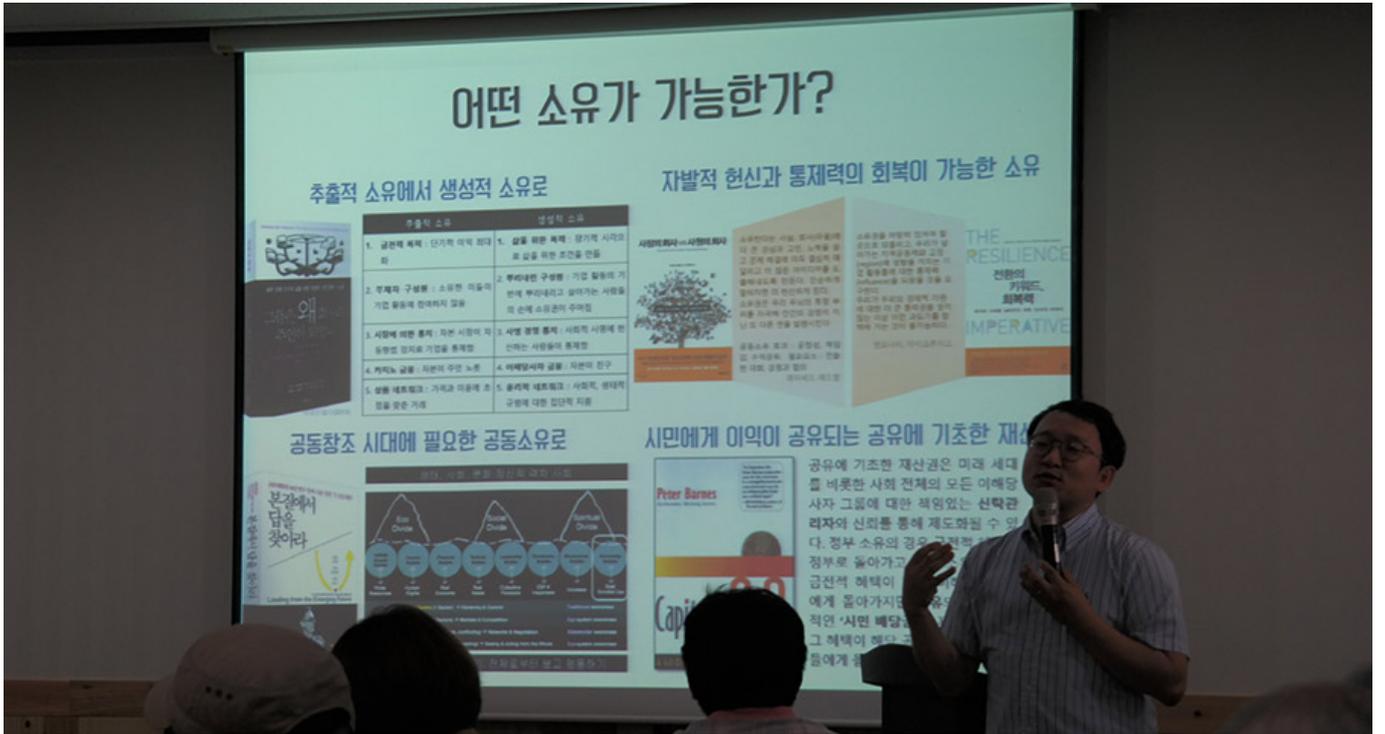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마을은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모이면 마을은 바로 사람, 또 마을은 사람 모두입니다. 마을 공동체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마을은 사람입니다.”

마을은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소유의 형태를 넘어서, 소유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의 질문에, 우리는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JTBC의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전 시 명
〈그림소개展〉

| 전 시 기 간 |

2017년 5월 24일 ~ 2017년 6월 21일

| 전 시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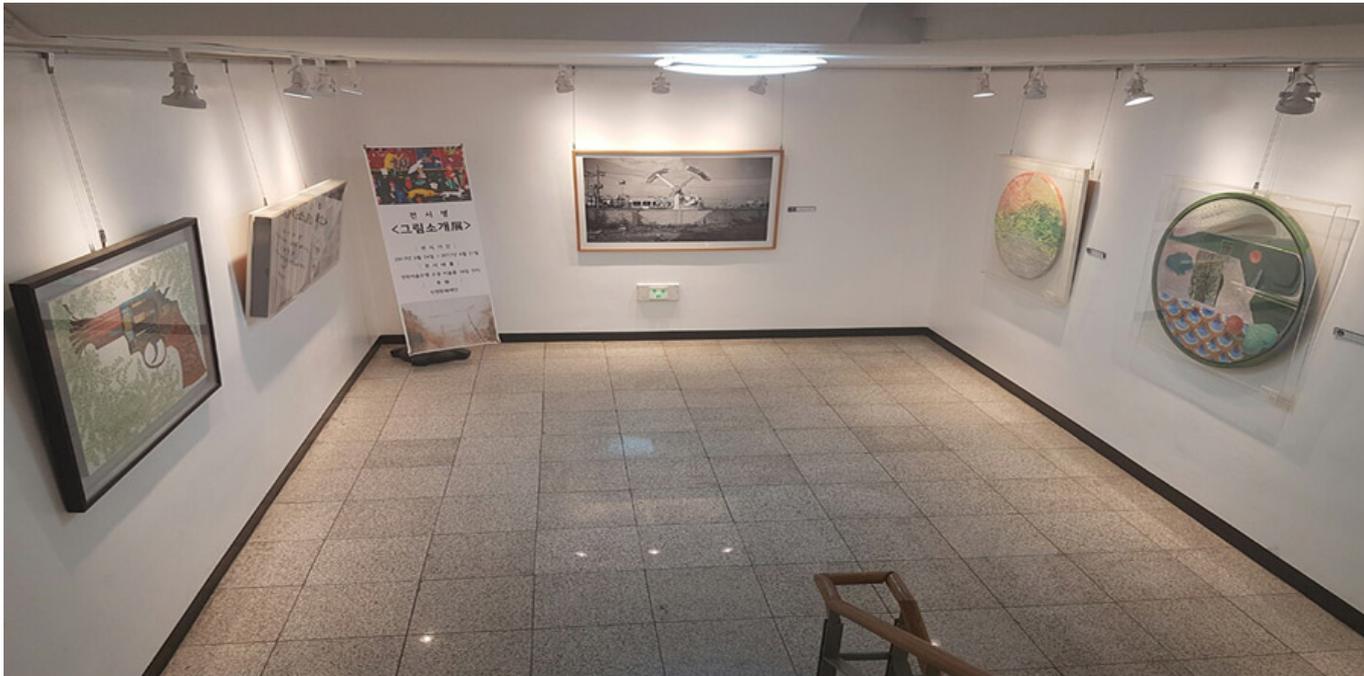
인천미술은행 소장 미술품 16점 전시

| 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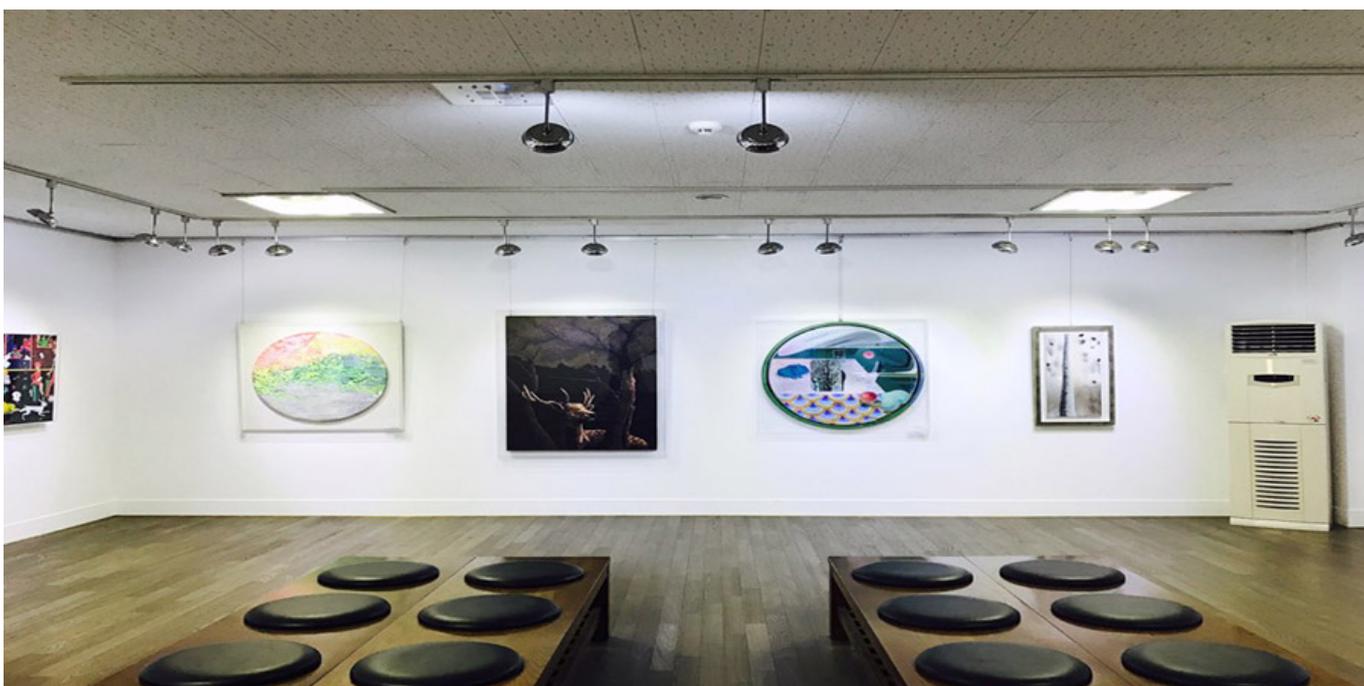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6월 21일, 2017 인천미술은행 소장 미술품 16점 전시 <그림소개展>가
인천미술은행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인천미술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16점의 미술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미술품을 접하고,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천미술은행의 소장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2017년 전시를 통해 인천미술은행의 소장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인천미술은행의 소장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번 전시
를 통해 인천미술은행의 소장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만수고등학교 전시장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전시장

2017년 3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만수고등학교 전시장을 통해 만수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만수고등학교는 2005년 2014년 165명,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는 '미추홀' '외국어'를 주제로 16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만수고등학교는 2017년 3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만수고등학교 전시장을 통해 만수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



임선희, '가방속에'



김혜선, '꿈-2008'

이 작품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현대 미술 작품이다.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조화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품은 <2008 5월>에 전시된 작품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작품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융합하여 독특한 시각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작품은 <peace-2008 & 2009>에 전시된 작품으로, 작가의 사회적 관심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작품은 <2008 5월>에 전시된 작품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다양한 스타일과 기법을 융합하여 독특한 시각 언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작품은 <peace-2008 & 2009>에 전시된 작품으로, 작가의 사회적 관심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 2017 년도 이 작품은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현대 미술 작품이다. 작품의 주제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감정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은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조화를 통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작품은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 □□□ □□□□

□□ ‘□□ □□ □□□’

□□ 6□ 16□□ 17□, □□□□□□□ □□□□□□□ ‘□□□□ 149’□ □□□□ □□ □□□□ □□ < □□ □□□ □□□□>(□□□□ □, □□)□ □□□□. ‘□□□□ 149’□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 □□□ □□ □□□□□. □□□□□□□□□ ‘□□□□ 149’□ □□□□ □□□□ □□□□□ □□□ □□ □□□□ □□ □ □□□ □□ □ □□□ □□ □□□□□ □□□□.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201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다. 이 연극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주제로 다룬다. 관객들은 이 연극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체험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 이 연극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다.



이 연극은 201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다. 이 연극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주제로 다룬다. 관객들은 이 연극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체험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 이 연극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다.

이 연극은 201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다. 이 연극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주제로 다룬다. 관객들은 이 연극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체험하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다. 이 연극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다.